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14

형들을 만난 요셉

(창세기 42장)



**땅을 뒤덮은 기근은 야곱과 아들들이 살고 있는
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어요.**

**“아버지, 이젠 곡식 창고에 볍씨 한 알
남아 있지 않습니다.
이를 어떡하면 좋을까요?”**

**“저희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난립니다.
이젠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!”**

야곱이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.

**“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고
먹을 것이 생기겠느냐 직접 움직여야지.
들자하니 저기 이집트 땅에는
지혜로운 총리 한 분이 계셔서
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하는구나.
돈을 가져가면 식량과 바꿔준다고 하니
너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거라.”**

**그렇게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은
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요.
하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큼은
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죠.**

**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로 베냐민에 대한
사랑이 더 커져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.**

**드넓은 사막을 지나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어요.
그 곳에는 이미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죠.
식량을 타 가기 위한 줄이 어찌나 길었던지
요셉의 형들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했어요.**

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서가 왔어요!

**“자, 총리님. 다음 차례는 가나안에서 온
르우벤과 그 형제들입니다요~!”**

**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!
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
형들이 들어오고 있었죠.**

형들은 총리 요셉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한채 앞드려 절을 했어요.

**“가나안에서 온 르우벤입니다.
이집트의 지혜로운 총리시여 저희들의 절을 받으소서.”**

여러분, 이 장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?

**옛날에 어린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꿔들 때!
형들의 곡식면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을 했었잖아요.
그 꿈이, 실제로 이뤄진 거예요.**

**요셉은 형들이 반가웠지만
쌀쌀맞은 말투로 형들을 다그쳤어요.**

**“나를 속이려 하지 말아라 내가 보아하니
너희들은 스파이가 틀림 없다.
우리 이집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
몰래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?”**

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당황할 수 밖에요!

**“초..총리님, 그렇지 않습니다.
저희는 먹을 것을 사러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.”**

**“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야곱입니다.
저희는 열두 형제인데 막냇동생 베냐민은
아버지와 고향땅에 남아 있고
그리고, 다른 동생 한 명은 예전에 없어졌습니다.
그리고 저희 열 명이 이렇게 총리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!”**

요셉은, 예전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듯이
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건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.

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죠.

**“그래? 좋다.
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거라.
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
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 있거라.
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 되
너희의 막냇동생 베냐민을 데리고
다시 이집트로 와야 할 것이다.
그리하면, 내 너희의 말을 진실로 믿고
너희 모두를 살려줄 것이다.”**

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울상이 되었어요.

**“형님,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.
아버지께서 가뚝이나 요셉을 잃고
슬픔에 빠져계신데
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실 리가 없잖습니까!”**

**“맞습니다.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온다고 하면
아버지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구요.”**

그러자 큰 형 르우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.

**“흑흑흑... 이 모든게 다 우리가 요셉에게
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것이다.
내가 뭐라 했느냐 요셉을 해쳐서는
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?
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
벌을 내리고 있는거란 말이다! 흑흑흑...”**

**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.
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
다시 이집트 사람인척 근엄하게 말했죠.**

**“어서 결정하거라.
곡식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?
자, 너희 중에 누가 감옥에 남겠는가?”**

**식량이 필요했던 형들은 상의 끝에 시므온을 남겨두었어요.
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죠.**

**“그래, 곡식을 사 왔다고? 고생 많았다.
아니, 그런데 다들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느냐?
시,시므온이 보이지 않는구나
시므온은 어디있느냐? 어디 있는게야!”**

르우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
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.
이집트의 총리가 한 말들, 시므온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,
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지 않으면
시므온이 죽게될 거 라고도 말해주었죠.

그 말을 들은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.

**“요셉도 잃고... 시므온도 잃고...
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?
안 된다, 안 될 말이야.
베냐민에게마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
나에게는 무엇이 남는단 말이나?
안된다. 베냐민은 절대 이집트에 갈 수 없다!
그리 알아 두거라.”**

너무나도 완고한 야곱의 말에 형제들도
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.
당장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들로 버틸 수 있어도
금세 곡식은 또 바닥나고 말텐데...
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야할지 걱정만 깊어져갔죠.

여러분, 과연 야곱은 마음을 바꾸게 될까요?
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이집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